

사랑이라는 뜻대 달고 심연을 건너 별빛으로 그려낸 항해

오혜성 개인전 '별의 항해'...내달 6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별빛 매개, 내면의 고뇌·존재의 의미 성찰...삶의 방향성 모색
일상속자아 회복, 구원에 이르는 내적 여정 은유적으로 풀어내

우주의 별빛을 매개로 인간 내면의 고뇌와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고,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사유의 시간이 펼쳐진다.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는 오는 7월6일까지 청년작가 오혜성 개인전 '별의 항해'를 개최한다.

작가의 작업은 별을 향한 동경에서 출발했다. 이번 전시에선 광활한 우주 속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을 그린 회화 작품 25여 점을 선보인다.

별은 누군가에게는 소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히는 빛이다. 작가에게 별빛은 존재 이유이자 곧 존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의 별로 태어났지만, 때로는 빛을 잃은 채 어둠 속에 머무는 시간을 겪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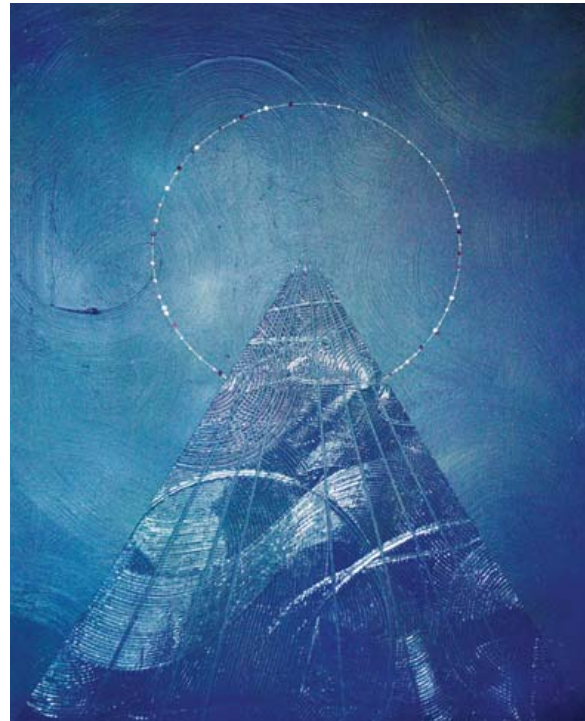
작가는 "빛을 잃은 별"이라는 상정을 통해 자아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내면을 비추고자 한다. 그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실, 슬픔, 분노, 증오 등의 감정을 '번뇌의 7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아 회복과 구원에 이르는 내적 여정을 은유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짙푸른 우주 공간 속 별빛이 흩뿌려진 장면을 캔



'성간물 질이'

버스 위에 구현한 작품 '성간물 질'은 실제 성운이나 별 무리를 연상케 한다. 물감 위에 크리스탈 파우더와 스와 로브스키 크리스탈을 혼합해 제작한 이 작품은 단순한 이미지의 재현을 넘어 빛 자체를 물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작가의 시도를 보여준다.



'B-250125(orbit)'

감상자의 시선에 따라 미세하게 반짝이는 입자들은 마치 별이 살아 숨 쉬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의 그림 속 우주는 곧 인간 심연을 비추는 영혼의 은하로 다가온다.

그의 작업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화려한 세상 속 자아를 쉽게 잃어버



'Oort cloud'

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어둠 속에서 헤맨다. 그럼에도 작가는 어둠을 지나 빛을 되찾는 여정 속에서 인간은 자아를 회복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회복의 순간을 사랑이라 명명한다. 별빛이 다시 떠오르는 찰나,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빛을 캔버스 위에 펼쳐낸다.

작가는 "별빛은 단지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존재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 역시 각자의 별을 되찾고, 잊고 있던 자신만의 빛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혜성 작가는 계원예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광주, 전주, 보성, 무안 등에서 개인전 8회를 가졌으며 '수평의 춤: 서 있기 위해선 춤을 추세요' (2025), '현대미술 60년! 또 다른 역사' (2024), '모멘텀 창조적 진화' (2023) 등 단체전 50여 회에 참여했다. /최명진 기자

톡톡 튀는 4인 시선으로 확장된 예술의 자리

12일까지 예술공간 집 '2025 넷지프로젝트'...김희남·려은·송미경·최원규 참여

지역 작가들의 창작 세계를 확장하고자 기획된 예술공간 집의 '넷지프로젝트'가 올해도 이어진다.

'넷지프로젝트'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확장·심화시키고자 2022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술공간 집의 상징적 기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프로젝트에는 김희남(입체·설치), 려은(설치·드로잉), 송미경(회화), 최원규(설치·미디어) 작가 총 4인이 선정됐다. 각 작가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전시는 오는 12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전시와 함께 심층워크숍도 마련됐다. 워크숍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각 작가별로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된다. 초기작부터 현재 작업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작품의 방향성과 작가적 강점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작가, 기획자, 일



최원규작 'Landscape I 삶, 풍경 I'

반 관람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작가들의 작업도 눈길을 끈다. 김희남 작가는 종이, 필름,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로 체험적 조형을 시도하며 려은 작가는 삶의 잔해와 풍경을 미디어와 설치 형식으로 풀어낸다. 송미경 작가는 희미한 화면과 단절된 신체 이미지로 인간 내면의 깊이를 묘사하고, 최원규



김희남작 '넋달' 시리즈(넋달다. 잊달다. 손달다.)

작가는 수집한 사물과 이야기로 잊혀가는 흔적을 재구성한다.

문화영 예술공간 집 대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4인의 작가는 각자 뚜렷한 상징성과 매체를 가지고 있다"며 "지역 미술 생태계에 다양성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크숍 관련 문의(062-233-3342). /최명진 기자

'크랙샷'·'브라운티거'·'마우라 델가도' 등 14개국 32개팀 '진검승부'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 본선팀 확정

광주 동구가 세계 각국 뮤지션들의 열정과 실력을 겨룰 글로벌 음악 경연의 무대가 된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30일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 예선심사를 마치고, 본선에 진출할 32개 팀의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시와 광주 동구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직 라이브 공연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버스킹 경연대회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42개국에서 488개팀(총 1천29명)의 뮤지션이 참가 신청을 하며 예년보다 더욱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국가별 참가 현황을 보면 유럽 72팀, 아시아 58팀, 남아메리카 17팀, 북아메리카 15팀, 아프리카 4팀, 중동 1팀 등으로 다양성을 갖췄다.

본선 무대에는 국내 18팀, 국외 14팀 등 총 14

개국 32개팀(123명)이 오르게 된다.

주목할 만한 팀으로는 국내 참가팀 중 JTBC '슈퍼밴드2' 우승팀으로 잘 알려진 밴드 '크랙샷', 합창/R&B 아티스트 '브라운티거'가 이름을 올렸다.

해외에서는 아프리카 대표 음악 마켓 'Atlantic Music Expo'에 참가한 카보베르데 싱어송라이터 '마우라 델가도', 인도 대표 쇼케이스 'Sounscape of India' 출신 팀 '타피'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음악 페스티벌 기획자 및 공연 디렉터 1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향후 자국 축제에 출연진을 초청하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본선 무대는 오는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 동구 일원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최명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